

## 『율리시스』 독회: 「사이클롭스」(II)

김 상 옥

### <일러두기>

- 기록 내용은 다음 세 가지, 즉 독회에서 개진된 견해를 정리자가 기록한 부분 (발의자 이름 표시), 독회에 참석한 회원이 독회 후에 침삭 정리해서 보내온 메모 (발의자 이름 뒤에 \*표시), 불참한 학회 회원이 개별적으로 보내온 의견 (발의자 이름 표시)으로 구성된다.
- 1차 정리한 독회기록문은 참석자에게 초고 형식으로 회람되어, 침삭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거쳐 완성된 독회기록문을 학회홈페이지 및 회원에게 최종본으로 송부한다.
- *Ulysses*는 Gabler 판본에 의거하여 장과 행을 표시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처를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 *U*라고 표시한다.
- 독회에서 거론이 되었더라도 Gifford의 주석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록할 경우 (G)로 표시한다.
- 발제자의 모두(冒頭) 발제는 <발제>, 참가자 간의 의견 교환은 <토론>으로 표시한다. 사후 접수된 의견 가운데 제목이 붙어있고 비중이 있으며 논점이 명확한 해제의 글은 <토막썰평>으로 분류한다.

■ 아래의 기록 정리는 앞으로 계속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으며, 그 최종본을 학회지에 일괄 게재한다.

## 제48회 『율리시스』 독회

###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구관 412호

일시: 2007. 7. 21. (토) 오후 2:15-5:45

독회진행자: 김경숙

정리자: 김상욱

범위: *Ulysses*, Chapter 12 (Cyclops), Lines 1676~끝

참석자: 강서정, 김경숙, 김길중, 김민정, 김상욱, 남기현, 손승희, 송인영, 이인기, 이종일, 전은경, 홍덕선, 최석무, 정인경, Brian MacMahon

### <발제>

1676행부터 1750행까지 이르는 28번째 긴 삽입문은 바니 키어넨 주점을 축복하러 온 수많은 성인들과 사제들의 행렬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복잡한 종교 의식의 절차를 세세히 묘사한다. 이는 앞서 1673행에서의 마틴 커닝엄의 기도 “God bless all here is my prayer”에 뒤이은 것으로 “blessing”이란 말 한 마디 즉 담론이 갖는 파워라는 사이클롭스 장 전체의 주제가 다시 한 번 강조되는 대목이다.

29번째 그리고 30번째의 삽입문은 나중에 있을 시민과의 대결에서 블룸을 엘리야로 변모시켜 승천시킬 준비를 한다. 먼저 29번째 삽입문은 19세기의 낭만적 목가풍의 중세 전설 양식을 통해 블룸이 떠나가는 장면을 묘사한다. 그리고 멘텔스존, 칼 맑스, 스피노자, 그리스도, 그리고 하느님이 모두 유태인이었다고 외치는 블룸을 30번째 삽입문은 평화의 사절로 묘사하며 곧 이어질 시민의 폭력을 회화화한다. 의사영웅시체의 31번째 삽입문은 시민이 블룸에게 던진 비스킷 상자의 충격을 “대격변적 지진”으로 과장하며 시민의 폭력성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인종

차별주의가 갖는 파괴력은 지진이 갖는 그것보다 더 엄청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리고 시민이 던진 비스킷 상자를 피해 마차를 타고 달아나는 블룸은 성경구절을 패러디한 마지막 삽입문인 32번째 삽입문을 통해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로 변용한다.

결국 앞서 있었던 29번째, 30번째 삽입문과 더불어 32번째 삽입문이 갖는 “담론의 힘 (discursive power)”은 시민의 “물리적 힘 (physical power)”로부터 블룸을 구해 주는 셈이다.

### <토론>

12: 1696-97. "S. Anonymous [...] S. Synonymous ~" 수많은 성자들을 한꺼번에 이르는 말인 듯 싶다. pun 또는 twist parody로 볼 수 있다. (김경숙\*)

12: 1704. "S. Aloysius Gonzaga ~" 첫째, Aloysius Gonzaga는 16세기 이태리 성직자로 예수회 소속. noble birth, angelic and short life, pure and glorified death로 유명함. young students의 수호 성인. (그래서인지, Clongowes Wood College의 수호 성인임.) 9세 때 정절을 서원한 이후 여성에게 시선을 돌린 적이 없다고 함.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도 바라보지 않았다고 전해짐. Joyce가 견진성사를 받을 때 자신의 수호성인으로 이 성인을 택하고 자신의 이름에 넣음. 둘째, Augustine 또한 조이스의 이름에 들어가는 성인인데 그의 Confessions에 "love"에 관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옴.

Book 33.1.1 To Carthage I came, where there sang all around me in my ears a cauldron of unholy loves. I loved not yet, yet I loved to love, and out of a deep-seated want, I hated myself for wanting not. I sought what I might love, in love with loving, and safety I hated, and a way without snares. For within me was a famine of that inward food,

Thyself, my God; yet, through that famine I was not hungered; but was without all longing for incorruptible sustenance, not because filled therewith, but the more empty, the more I loathed it. For this cause my

soul was sickly and full of sores, it miserably cast itself forth, desiring to be scraped by the touch of objects of sense. Yet if these had not a soul, they would not be objects of love. To love then, and to be beloved, was sweet to me; but more, when I obtained to enjoy the person I loved, I defiled, therefore, the spring of friendship with the filth of concupiscence, and I beclouded its brightness with the hell of lustfulness; and thus foul and unseemly, I would fain, through exceeding vanity, be fine and courtly. I fell headlong then into the love wherein I longed to be ensnared. My God, my Mercy, with how much gall didst Thou out of Thy great goodness besprinkle for me that sweetness? For I was both beloved, and secretly arrived at the bond of enjoying; and was with joy fettered with sorrow-bringing bonds, that I might be scourged with the iron burning rods of jealousy, and suspicions, and fears, and angers, and quarrels. (송인영\*)

12: 1736. "God might bless that house as he had blessed the house of Abraham and Isaac and Jacob~" 신부님이 술집을 축성한다는 것은 물론 과장이며 페러디이지만, 그 이면에 나름대로의 의미가 숨어 있는 듯 합니다. 우선, 술집에서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고(맥주를 마시기도 하겠지만) 포도주의 영향 하에 술집 밖으로 나가 살아가겠지요. 가톨릭에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성찬식 때에 사람들은 포도주를 받아 마시며 예수님의 피를 나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술집을 축성함으로써 술집의 포도주까지 축성할 수 있고, 이는 사람들의 일상에서조차 종교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조이스는 술집에서의 이야기나 술을 마시는 속된 행위를 종교나 민족주의와 나란히 놓음으로써 거꾸로 성스럽다고 여겨지는 종교, 애국심, 민족주의를 속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믿음이 마치 술이 주는 취기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강서정\*)

12: 1754. "I was just looking around to see who the happy thought would strike when be damned~" 일인칭 화자의 이러한 발언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말

하자면 이것은 경마복권을 맞추어서 한 건을 올린 블룸이 한 톱 낼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경마복권으로 횡재를 한 블룸에 대한 일인칭 화자의 시기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김길중\*)

12: 1761. "Cute as a shithouse rat" 여기에서 "Cute"은 귀엽다는 의미가 아니라 "cunning"이라는 의미이다. (Brian\*)

12: 1774. "A many comely nymphs~" 여기에서 "nymphs"는 아마도 갈매기 떼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임. (김상욱\*)

12: 1785. "the curse of Cromwell on him~" 어떤 측면에서 크롬웰은 당시 사회의 근간을 흔들었던 혁신성이 있었다. (Brian\*); 아무리 그렇다해도, 아일랜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크롬웰은 저주의 대상이다. (김길중\*)

12: 1845. "[...] as good as any bloody play in the Queen's royal theater~" the Queen's Royal Theater는 The Theater Royal과 the Gaiety Theater와 함께 더블린의 3대 극장 가운데 하나이다. Theater Royal은 주로 극작품이 상연되고, Gaiety는 뮤지컬, 그리고 Queen's는 이 두 가지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장르가 상연된다. (Brian\*)

12: 1849. "Bloody wars, says I, I'll be in for the last gospel." 신약성서 마지막 복음, 요한계시록; 미사에서 특히 중요함; 4가지 복음중 유일하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리는 복음서. (손승희\*)

12: 1909-10. "Hundred to five!" 어떻게 술집에 있었던 술꾼들은 블룸이 맞은 배당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가? 블룸은 물론 경마복권을 사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맞았다하더라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기현\*)

12: 1917. "[...] at an angle of fortyfive degrees [...] like a shot off a shovel ~" 신부님이 술집을 축성한다는 것은 물론 과장이며 패러디 이지만, 그 이면에 나름

대로의 의미가 숨어 있는 듯 합니다. 우선, 술집에서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맥주를 마시기도 하겠지만) 포도주의 영향 하에 술집 밖으로 나가 살아가겠지요. 가톨릭에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성찬식 때 에 사람들은 포도주를 받아 마시며 예수님의 피를 나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술집을 축성함으로써 술집의 포도주까지 축성할 수 있고, 이는 사람들의 일상에서조차 종교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조이스는 술집에서의 이야기나 술을 마시는 속된 행위를 종교나 민족주의와 나란히 놓음으로써 거꾸로 성스럽다고 여겨지는 종교, 애국심, 민족주의를 속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믿음이 마치 술이 주는 취기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강서정\*)